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3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

복지도시로 가는 길



Column

인천형 사회복지의 조건과 전략

Interview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송다영 학과장과의 만남



IDI 소식



연구성과발표 및 현안점검 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여성가족국, 환경복지국, ...

Zoom 人



"연구원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고 싶어요!"
연구원 개원기념일을 한 달 여 앞둔 어느 햇살 좋은 봄날, 우리 연구원...

Zoom INcheon



제물량로 1 : 화수부두와 만석동
제물량로는 화수 사거리에서 신광사거리까지의 길로 총연장 4Km의 도로이...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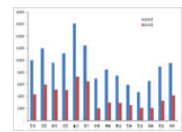
자연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녹색도시, 독일 부퍼탈
독일 서부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위치한 도시 부퍼탈 [Wupperta...

IDI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연구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

인천지표



지표로 보는 인천의 사회복지 현황
저출산·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사회 복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3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권정호 인천사회복지연구원 원장

인간이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사실을 아는데 몇 만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많은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잊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타난 인간의 삶의 변화가 정착생활이다. 봄에 어떤 씨를 뿌려 놓으면 어떤 열매가 열린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에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 특히 주식이 되는 쌀이나 밀 같은 작물의 경작을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다. 인간복지의 기본은 먹고 사는 문제였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이 가능한 곳에 사람이 모여 살게 되었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즐거움을 나누고 살아왔다.

이러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삶과 행복이 한 때 국가사회의 힘에 지배 당해왔지만 최근의 추세는 생활에 기반을 둔 지역복지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의 언급처럼 새로운 공동체 구축의 노력이며, 세계화에 따른 국가경계의 약화와 지역사회 간의 세계적 소통이라는 시대적 흐름, 이른바 세방화(globalization)에 따른 사회 운영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사회의 획일적인 제도보다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주민의 삶의 방식에 보다 관심을 갖고 이에 걸맞는 복지제도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나 지역적 특성이 있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인천에서의 삶과 대구나 부산, 혹은 제주에서의 삶은 다르다. 인천 안에서도 송도에 사는 사람의 삶과 강화 불온면의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나 여건을 다르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인천의 특성과 삶의 조건을 따져 지역주민의 행복을 고민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복지는 이러한 지역에 기반을 둔 인간의 삶에 근거한다. 사람은 일정지역에 정착·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생활하게 되고, 그 지역은 지역마다 다양한 양상을 가지며, 또한 주민생활에 미치는 문제 또한 상이하고 다양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삶의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이 스스로 문제의 실태를 분명히 파악하여 해결 과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문제해결에 노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복지의 본질이다. 따라서 인천형 복지란 인천지역 주민의 삶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인천지역의 삶의 조건과 특성에 맞는 복지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인천이 지역공동체로서 독립된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 그리고 인천형 사회복지란 지역복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역공동체의 조건들을 인천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지역복지 이론가인 린드만(Lindeman)은 경제, 질서, 교육, 위생, 보건, 여가와 더불어 공동의 가치나 발전에 대한 가능성 등을 이상적인 지역사회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지역공동체의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인천형 사회복지는 인천을 먹고살기 좋고 질서가 바로서고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여가를 즐기고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교육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의 삶의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는 관료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지역사회 주체들간의 협력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고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진정한 거버넌스를 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관협력의 새로운 전달체계 안에서 상호협력하고 상승효과를 만들어내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천의 사회복지는 민간의 역할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민간부문의 역할을 신장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인천형 사회복지는 민간의 역할을 신장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기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 가운데 소수계층이나 약자 계층의 이익과 의사가 반영되고 주민의 협력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운영체제와 지역복지체제가 연동되어 작동한다면 매우 성공적일 것이다. 또한 인천형 복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실태와 문제의 양상이나 긴급성 등 복지자원의 크기에 따라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나 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연구와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인천이 매우 취약한 요소이지만 한정적인 복지자원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협의하는 기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복지 실천은 국가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를 지역사회 생활 중심으로 바꾸는 거대한 변화라는 인식에서 인천형 지역복지 모형을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화를 이끌어 가는 사고, 변화의 주제 그리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천형 복지는 인천지역의 강점과 약점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거대한 복지실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제가 되어야 한다. 전략적으로는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공유가치를 개발하고 지역복지 실현이라는 공동의 가치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변화의 힘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정부와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복지자원 공급체계를 만드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자원봉사라는 인적자원과 지역경제주체의 기여와 공헌이라는 물적자원을 복지수요와 연계시키는 거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역복지는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형 복지모형의 구축은 지역의 특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안목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전략적 기제로 삼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이 공 심은데 공 난다는 사실을 아는데 몇 만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많은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잊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공 심은데 공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타난 인간의 삶의 변화가 정착생활이다.

인천 사회복지의 오늘과 내일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3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 사회복지의 오늘과 내일

— '인천형 사회복지'의 첫걸음은 전문 인력 양성부터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젊은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송다영 교수를 만나 인천 사회복지의 오늘과 내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송다영 교수

Q 인천에서 유일한 4년제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으로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인천대가 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학과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는데, 사실 저는 인천에 사회복지학과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다른 대학들이 사회복지 전문 인력들을 배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군단을 형성하지 못해서 지역의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충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는 올해로 3회째 졸업생 배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원이 15명이었지만, 2011년부터 30명으로 증원되어 하나의 학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생 학과지만 성과는 많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면서, 사회복지사 시험에 매년 거의 100%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졸업생 배출이 적어서 지역사회로 진출한 학생들이 많지는 않고, 공무원시험에 응시해서 3명의 학생이 합격하는 등 앞으로 점점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회복지학과와 일반적인 커리큘럼과 차별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학과장이 된 이후, 기존에 사회복지 부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해서 그 분야로 인재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복지를 비롯해 기업의 사회공헌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도 교과과정에 포함하였으며, 다문화와 글로벌 사회복지를 인천대 사회복지학과와 특성화 분야에 포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인천 사회복지의 현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의 앞으로 발전해나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의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분야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그 수준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천은 인력분야나 사업 확장 부분에서도 수도권으로 묶여 있어서 자기 색깔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대구와 부산인데, 이들은 서울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독자적인 사회복지모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색깔을 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은 서울과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있다 보니,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대신 자생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할 때, 대구나 부산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인천은 경기나 서울에서 인력이나 사업모형을 유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에서 시작하여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사회복지사업 모형을 없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야 합니다. 인천은 노동운동 세력이 강력하고, 인천시민연대 등 나름대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들

노동운동세력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시너지 효과가 부족합니다. 학계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 사회과학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마이너 단과대학에 숫자도 적은 것이 현실이라서 노동, 시민단체, 학계를 연대하고자 할 때 묶을 수 있는 그룹이 쉽지 않습니다.

Q 타 시도와 비교하여 인천의 사회복지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인적 기반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경기 등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자생력이나 독자성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Q 지난 몇 년 동안 인천형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언급되지만, 그 실체가 궁금합니다. 인천형 사회복지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인천형, 서울형, 부산형이라는 말은 지자체 정책기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자체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여전히 제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 인구가 270만인데 인근의 서울, 경기와 비교할 경우 인구규모는 상당히 적고, 인천의 독자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 사이에서 제3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재원이나 전문 인력이 충족되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천형 사회복지를 구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집단의 구체적인 아이디어 제시가 필수적이지만,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인천에 소재한 4년제 대학, 그 어디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숫자가 적고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인천형 사회복지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 인력을 모아서 인천형 사회복지를 만드는 것이 첫걸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지난 4, 5년 전부터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복지재단들을 만들어서 시에서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오고 있습니다. 인천사회복지재단은 작년에 출범을 앞두고 전문가, 사회복지종사자, 공무원, 시민단체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산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가야할 길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뒷받침을 갖고 시작하느냐, 처음에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인천사회복지재단이 거의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무산된 이유들 중 하나는 인천사회복지재단의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의 독립성에 대한 이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업무에서의 협력체계 구축, 지속적인 재정 지원 등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다면 인천사회복지재단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대로 준비해서 재단 설립을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다 만들어졌는데 인천도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람직한 재단 형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가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허가를 받고, 인천시에서 95억원 정도로 80여개 프로그램을 갖고, 앞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 교육,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이 질문을 받으니 지금쯤 복지재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부터 시작해서 실행, 교육, 평가, 모니터링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로드맵을 그려줘야 하는 부분이라 책임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사실 예산 규모가 대단히 큼니다. 사회서비스는 확대해야 될 부분이지만,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이 투입된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달체계를 잘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되겠지요. 이 예산이 인천지역에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들 수 있는데, 우선 누가 필요로 하느냐에 대한 조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것 외에 인천지역이 답아야 될 지역사회 서비스가 무엇이나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깊이 하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을 때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업 초기에 오랜 시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조금증이 있는 편인데,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보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포커스그룹 인터뷰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예산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을지, 누구를 파트너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후에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시어은 지체하기 보다는 기획하는 시기가 오래 가면서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자

이런저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차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대담 : 이 용 갑(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 ■ 기록 : 장 순 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젊은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송다영 교수를 만나 인천 사회복지의 오늘과 내일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3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연구성과발표 및 현안점검 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여성가족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도시계획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국과 차례로 연구성과 발표 및 현안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분야 국장, 과장 및 실무자와 우리 연구원 김민배 원장을 비롯한 관련 박사들이 모여 정책부서와 연구원 간 시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대응전략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연구성과발표 및 현안점검 간담회 개최



환경녹지국 간담회



도시계획국 간담회

우리 연구원은 지난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여성가족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도시계획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국과 차례로 연구성과 발표 및 현안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분야 국장, 과장 및 실무자와 우리 연구원 김민배 원장을 비롯한 관련 박사들이 모여 정책부서와 연구원 간 시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대응전략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여성가족분야

<여성정책과>는 올해가 여성정책센터(가칭 여성가족연구원)의 출범을 준비하는 해라고 밝히고,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2013년 1월 출범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타 시도 모델을 참고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관내

여성단체들과도 의견을 조율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인정책과>는 “인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를 기본과제로 채택하여 수행한 것에 감사의 전하면서, 해당 연구 추진 시 건강노인과 비건강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타 시도에서 수행한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한 용역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군·구 공동 TF를 구성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노인과 관련한 여러 기반시설의 기능별 차별화 방안 등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아이디어가 담긴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분야

<대기보전과>는 환경분야 연구성과에 대한 견해 및 요청사항으로 인천시에 설치된 발전시설 및 증설·확장계획에 따른 지역에 미치는 대기영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우리 연구원 조경두 선임연구원은 2012년도 기본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틀을 구성하고 발전소 확충·증설계획에 대비한 인천시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정책부서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과>는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도시생태현황(비오름) 지도 작성 및 GIS 구축 용역”을 연구책임자 교체에도 연속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조경두 선임연구원이 환경계획 및 조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연구자를 연구책임자로 변경하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GCF (Global Climate Fund) 유치와 관련하여 유치효과에 대한 연구수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허동훈 정책연구실장이 경제자유구역청 요청에 의하여 도시경영연구부(조승현 박사)에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수질보전하천과>는 “인천광역시 관할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의 마무리까지 만전을 기해줄 것 등을 당부했고, <청소과>는 누수도면 매립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폐기를 반입부담금의 부과방안의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분야 연구자의 연구년 휴직에 따라 연구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규모가 큰 연구과제를 제외하고, 정책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과제 수요는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공원녹지분야 연구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물류분야

<해양항공정책과>는 “인천광역시 지역 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3월 중 착수보고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연구원에서 수행한 서해5도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실적을 정책집행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과>는 연구실적에 수산분야 연구가 없어서 향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진의 충원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2012년 출연금 예산 신청 시 작성한 인력충원계획에는 수산분야 연구진 충원을 계획하였으나,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했음을 밝혔다. <도시발전지원과>는 2012년 하반기 정책기획 연구과제로 ‘강화 연안크루즈 관광기반시설 구축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안했다.

○ 도시계획분야

<도시계획과>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강화 등 비도시지역 주민의 반발이 큰 형편이라고 말하면서 지역민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원에서 수행한 2010년 기본과제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의 특성 및 관리방향”과 2011년 기본과제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부 정책제언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집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더불어 정책자문을 통해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계획과>는 주거복지 정책 등에 대한 연구내용을 참조하여 현안해결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정책팀>은

주거정비사업과 관련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시민교육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을 성안중에 있으므로 연구원에서 콘셉트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문화관광체육분야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음. 아쉬운 점은 연구결과와 실질적 활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밝히고, 폭증하는 정책수요에 비해 해당 분야 연구진이 적어 연구지의 업무부담을 고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과장>도 시민들의 문화욕구가 증가하여 문화분야 연구수요가 많아진데 반해 현재 1명의 연구인력으로서 문화분야 연구수요를 감당하기 곤란해 보인다고 말하고, 인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연구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재과장>은 2013년 정명 600주년과 관련한 사업을 통해 인천의 정주성, 정체성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연구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연구원은 연구원의 도시인문학센터 주관으로 인천의 역사·인물에 대한 구술·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복지분야

<보건복지국장>도 연구원 충원계획 수립을 요청했고, <사회복지봉사과장>은 광역자활센터의 선진화 방안 및 활성화계획 마련과 거리 노숙인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복지분야에 대한 수요 대응은 '인천여성정책센터' 운영을 참고하여 복지재단 혹은 센터의 출범과 연계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과장>도 연구인력의 한계를 아쉬워 하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단체 활성화 방안'을 의뢰하고자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 인천산업발전전략 전문가 포럼

인천의 산업전략, 미래 유망산업으로 구조고도화해야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중장기 전략산업 육성"이란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이번 전문가 포럼은 산업경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근 국내외 미래유망산업 전망을 파악하고 인천 지역경제의 특성에 적합한 중장기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광호박사는 '기술혁신과 미래유망산업'을, 산업연구원의 장윤종박사는 '한국경제의 최근 트렌드 및 미래유망산업'을 각각 발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유망산업을 검토하고, 인천 산업의 구조고도화 방향과 업종별 산업육성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연구자문관 초청 특강 및 자문회의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23일, 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자문관 초청 특강 및 자문회의를 가졌다. 올해는 2011년 도시계획 및 도시경관 분야 연구자문관으로 임명한 우영만 교수를 초청, 북경시의 도시기본계획 추진 현황과 인천시의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상호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복지국과 차례로 연구성과 발표 및 현안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3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연구원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고 싶어요!"

3월에 만난 id people

“연구원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고 싶어요!”

- 김선희, 이미경, 손주리 _ 사무처

“아프리에 올해, Zoom 人 코너에 'IDI 사람들'을 선보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연구원, 행정사무직, 기능직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 전직 연구원까지 여러 관계와 인연을 만나러 갑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원이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고, 가야할 길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와서(좌로부터 이미경, 손주리, 김선희씨)

연구원 개원기념일을 한 달 여 앞둔 어느 햇살 좋은 봄날, 우리 연구원 원년 멤버로 연구원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무처 김선희, 이미경, 손주리씨 3인을 만나 연구원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보고, 처음 연구원을 꾸려나갈 때의 에피소드와 추억,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조승현 편집위원이 사회, 석종수 편집위원이 사진을 찍고, 장순지 간사가 기록을 하였다. 그리고, 특히 골드 미스 손주리씨는 웹진 인터뷰를 통해 공개구혼을 한 바, 혼남 독자들의 연락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Q 연구원에 언제 입사했나요? 입사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김선희(이하 회) : 저와 이미경씨는 1996년 3월 27일에, 손주리씨는 4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16년째가 되었네요. 그 당시에는 공채가 없었고, 개원멤버들 거의가 특별채용 형태로 입사했어요. 저는 이미경씨와 같이 시청에 근무하다 관계부서의 추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리씨도 마찬가지고요.

Q 처음에 연구원은 어디서 문을 열었나요?

회 : 연수동 경기은행(현. 시티은행) 2층에서 시작했습니다. 원장님과 사무국장님 방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한 공간에서 한 개 층을 사용했지요.



이미경(이하 경) : 처음에 연구원은 '인천 21세기 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시도연구원 법이



없어서 지자체에 연구원이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원장님도 거의 비상근으로 출근하셨고요.

손주리(이하 리) : 연구원 이름도 트렌드를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전이 가까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발전소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식당 예약할 때도 관련한 적이 많거든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았고요. 시 산하 기관인 것도 확실히 인식시키는 네이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Q 초기 개원할 때 어렵거나 힘든 일도 많았을텐데, 상황이 어땠나요?

리 : 개원 준비할 것이 많아서 보통 새벽 1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정 개정도 준비해야 해야 했고, 정신없이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경 : 저희가 입사한 이후인 4월 23일에 개원한 것은 박사님 세분이 4월 20일에 임용되어서인 듯합니다. 지금 두분은 연구원에 계시지 않지만 이용식 박사님은 그때 입사하셨습니다. **회** : 그리고, 한달 후에 조경두, 윤하연, 이종현 박사님 등이 입사하셨습니다.



Q 개원 준비할 때 벤치마킹한 곳이 있었는지, 그리고 연구원을 담당해 준 부서가 따로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회 :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우리 연구원 규정이 경기개발연구원 것을 따른 것이 많습니다.

경 : 연구원은 시 교육지원계에서 준비를 해주었고, 그 인연으로 저도 연구원에 입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연구원에 몸담으면서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 : 저희 남편이요? (웃음) 제가 연구원 1호 커플입니다. 그 뒤로 연구기획팀 박미연씨도 3호 커플에 합류했고, 지금까지 거의 6호 커플까지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리 : 저를 제외한 모든 관리직 여성분들이 거의 결혼과 출산을 연구원에서 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회 : 초빙연구원들이 결혼적령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스레 커플이 되고 좋은 결실을 맺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란히 10주년 장기근속표창을 받는 모습.

Q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박사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회 : 이미경씨나 손주리씨도 마찬가지겠지만 박사님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협조해주시고 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연구에 계속 매진하셔서 연구원의 이름을 빛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지원해드려야죠.

Q 연구원에서 일하면서 지난 시간을 생각해볼 때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회 : 2010년 말에 연구원의 예산사정 때문에 초빙연구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퇴사한 일과 2011년에 연구직 박사님들이 5명이나 퇴사한 일이 가장 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초빙연구원들은 우리 연구원보다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한 것이 아니라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다 같이 안타깝게 생각했고, 연구직 박사님들의 경우, 물론 당신들이 원해서 퇴사했고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연구원이 그분들에게는 떠날 결심을 하게 만든 기관이었다라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면서 우리 연구원의 역사도 흘러가는구나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기관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좀 더 단단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리 : 김선희씨와 같은 생각인데, 자발적으로 나간 것도 아니어서 그때 분위기가 많이 침체돼서, 우울하고, 얼굴 보기도 서로 민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경 : 산재고용보험을 1년치 신고하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인원을 뽑았는데, 1월에 101명이었던 것이 2월에 갑자기 82명이 됐더라고요. 19명이나 그만둔 셈이죠.

서울시정연,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이 인천발전연구원이 막 성장하고 쏠아가서 우리도 이제 100명대에 돌입했다 싶었는데 갑자기 작년 평균이 83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안타깝죠.

Q 우리 연구원만의 특별한(?)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 : 호철 위장님이 국토연구원에서 오시면서 우리 연구원에 저직위가 볼 수 있는 근무현황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아직 그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곳 외에는 다른 어느 기관에서도 보지 못한 제도입니다. 개개인의 근무현황을 전직원이 보게 되는 것이다 보니 우리 직원 모두가 매우 조심하게 되는 제도이지만 이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 연구원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복무제도의 기틀이 잡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제도 때문에 연가 및 외출 등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굳이 장단점을 따지자면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Q.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이나 도입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 :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사회가 되면서 정년연장의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시기가 된 것 같고, 정년연장이 사회적으로 시기상조라면 박사님들의 정년 이후의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경두 박사님이 연구년 휴직을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미국에는 “한 개인이 어떤 기관에 소속해 근무하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그 소속원들도 같이 성장되는 기관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기관도 그런 멋진 직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마련되어야 할 테지만 지금은 인천시가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때문에, 우리 연구원도 많은 시간들을 방어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분히 좋은 제도를 꾸준히 도입하여 우리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들이 우리 연구원을 참 자랑스러운 연구원으로 여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 : 정년과 바꾸지 않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대구 경북 연구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 4년전에 우리은행으로 기억되는데, 전체 정규직들이 다함께 연봉의 10%를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연차가 5년 이상 된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은 무기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Q.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이나 서운한 일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리 : 저는 단순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내원하는 국내외 손님들에게 양질의 커피를 드리고 싶어서, 커피전문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어요. 3년여의 노력과 테스트 끝에 특별히 공수한 원두를 믹스해서 외부 손님들이나 박사님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드리는 커피를 맛있어 하고, 출처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때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회 : 제가 오랫동안 담당했던 일 중의 하나가 직원 채용인데, 지원부서원은 채용횟수가 별로 없었고, 연구직 박사님들의 채용업무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채용절차를 진행해서 박사님들이 채용되어 연구하시는 걸 보면 너무 당연한 업무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 : 관리직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서운하다면 서운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단 한 사람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기계적인 잣대로 판단을 하니까요. 서울시정연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 예를 들어 용역 담당, 일반회계 담당이 각각 두 명씩인데 반하여 저희는 한명뿐이죠.

그런데 관리직 인원을 말할 때 정규직 인원만 카운트를 하다 보니 인원이 더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 연구원은 모두 정규직이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회 : 쉽게 말하자면 사무보조원이 없는 셈 인거죠. 입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사, 명패나 발송 작업 등등, 단순업무들도 계속 맡아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사무처장님도 얼마전에 이런 고충을 아시고는 사무보조원을 채용할까도 물어보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관리직이 많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사무보조원을 쓰는 건 부담스럽고 해서 반대했어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회 : 저는 은퇴 후에 무엇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뭐가 됐든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경 : 김선희씨나 주리씨한테도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 연구원에서 나가게 되면, 나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하고 싶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2008년 필리핀으로 연구여행을 갔을 때 모습.

리 : 외국의 경우에는 나이 50, 60이 돼서도 비서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드물잖아요. 물론 요즘들어 비서도 전문직화 되고는 있지만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인발연에서 오래 근무해서 최고령 최장수 1호 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근무기간만 따져보면 인천시 공공기관 비서 중에 제가 가장 오래 일한 비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결혼은 2년 후인 40에 할 생각인데요, 월진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구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취미가 맞는 분이면 좋겠는데, 제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부속실에 있다 보니 시간 할애나 휴가가 자유롭지 않아서, 자투리 시간이 생기면 무조건 여행을 가는 편이라, 함께 할 분을 찾고 있고요, 제가 키가 174cm여서 남자들은 175cm 이상만 되시면 됩니다. 연상, 연하 기릴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조건 맞으시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연구원을 그만두게 되면, 나중엔 작더라도 커피전문점을 열고 싶은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제11대 이창구 원장님
젠틀맨 원장님!!

연구원 개원기념일을 한 달 여 앞둔 어느 햇살 좋은 봄날, 우리 연구원 원년 멤버로 연구원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무처 김선희, 이미경, 손주리씨 3인을 만나 연구원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보고, 처음 연구원을 꾸려나갈 때의 에피소드와 추억,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3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제물랑로 1 : 화수부두와 만석동

인천의 길 이야기 3

제물랑로 첫번째

화수부두와 만석동

글/김창수(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사진/석중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제물랑로는 화수 사거리에서 신광사거리까지의 길로 총연장 4Km의 도로다. 인천의 중·동구 일대를 제물포라고 부르게 된 것은 조선 중기에 성창포 일대에 수군 방어진지인 제물랑(濟物梁)을 설치하면서부터다. 제물포란 제물랑이 설치된 포구란 뜻인 셈이다. 서양인들은 개항 이후 인천을 제물포라고 불렀으며, 해방 직후 인천부를 제물포시로 명명한 적도 있어서 인천을 대신하는 지명 가운데 하나다.

제물랑로는 인천의 구도심지역인 동구와 중구의 옛 해안선과 나란히 달리는 도로인 인중로의 안쪽 길이다. 제물랑로의 출발 지점인 화수사거리에는 화수부두와 조선기계제작소 터가 있다. 화수부두는 60~70년대에는 인천의 대표적 어항이었지만, 제철소를 비롯한 산업시설로 둘러싸여 포구가 웅색해지고 말았다. 아직도 어선 몇 척이 매어 있고 한 조선공장에서 배를 제작하고 있어 옛 영화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포구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최근 인천시와 동구청에서는 폐허처럼 남아 있던 화수부두를 포구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만석부두와 화수부두를 어항구로 지정하고 생활형 수산물 어시장으로 재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오랫동안 방치된 데다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도심에서 포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화수부두 뒤편에 있는 현재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 조선기계제작소로 출발한 기업으로, 본래는 광산용 기계를 만들다가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군수 공장으로 바뀌었다. 이 공장에서는 잠수정을 제작하는 등 군수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동자를 증원하게 되고, 이들을 위한 임시 숙소도 지어졌다. **아카사키촌**(赤崎村)이라고 불리는 쪽방촌은 이 무렵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쪽방촌은 한국전쟁 후에는 북에서 월남한 피난민들의 임시 주거지가 되었다. 조선기계제작소는 해방 후 한국기계공업으로, 다시 대우중공업으로 바뀌었다가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이 공장 터는 주인만 바뀌었을 뿐 75년간 기계 업종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화수부두의 조선소



화수부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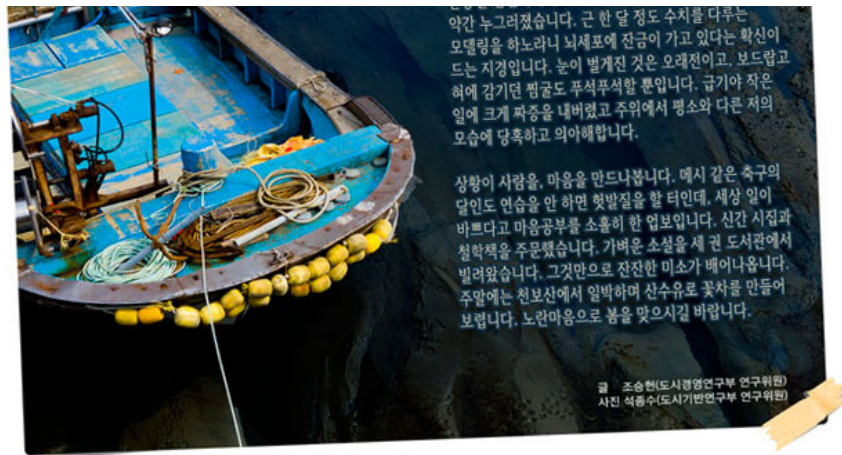


동양방직 인천공장 정문

제물랑로를 가다보면 화도진터를 지나 만석동에 있는 동일방직공장을 지나게 된다. 동일방직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설립된 동양방직 인천공장의 후신이다. 동양방직은 방직 3천 5백 추, 기계 1천 2백 대를 설치하여 조업을 시작했다. 이 동양방직은 강경애의 대표작인 소설인 **인간문제의** 중요한 배경인 **대동방직**의 모델이기도 하다. [인간문제]의 주인공인 [선비]는 소작인의 딸로 지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고향을 떠나 방직공장 여공이 되어 비인간적인 회사 측의 처우에 대항하는 싸움을 시작한다. 소설의 한 대목을 인용해 보자.

이처럼 재물랑로의 출발지점인 만석동 일대는 오랫동안 가난한 인천인들의 생활 터전으로 이어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근대 산업사와 노동운동사의 현장이었고, 문학 작품의 배경이기도 했다.

[illegible]



정확히 1년 전 3월에 달동네 박물관과 만석부드가 **우진주꾸미**를 소개했는데, 우연처럼 올해 3월은 제물량길을 걸다가 만석동 주꾸미골목의 **안면도주꾸미**를 맛보게 되었다. 아무래도 주꾸미가 3월 중순부터가 제철인 덕분이기도 할 것 같다.

안면도주꾸미는 만석동 주꾸미 골목의 **할머니주꾸미**와 함께 맛 집 애호가들이 찾는 유명한 식당이다. 29년 전통의 안면도주꾸미는 실제로 사장님이 안면도 출신이다. 서산, 군산 등 서해바다에서 공수한 싱싱한 주꾸미로 요리하는데, 사장님의 빼놓을 수 없는 비장의 무기는 최상급 고춧가루다. 식당마다 주꾸미 볶음의 양념은 비슷비슷하지만, 맛의 승부를 좌우하는 건 고춧가루라고 생각한다는 사장님은 질 좋은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다는 것에 자부심이 크다.

주꾸미 볶음과 주꾸미 샤브샤브를 주문했다.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차려지는 밑반찬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다. 한눈에 봐도 묵은지로 보이는 김치가 세 종류다. 배추김치, 파김치, 총각김치. 그 외에 동치미와 미역초무침, 콩나물무침도 나오고, 갓 무쳐낸 상큼한 겉절이도 가져다주었지만, 모든 걸 제치고, 올킬한 메뉴는 묵인지 3종. 김치 맛이 기막히다. 별 기대 없이 그냥 김치려니 했는데 주꾸미 없이도 밥 한 그릇은 그냥 해치울 수 있는 밥도둑이다. 역시 고춧가루의 힘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치 때문에라도 밥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꾸미 볶음을 다 먹고 난 후에 먹는 볶음밥 대신 큰 양푼에 밥 넣고, 김 가루와 참기름, 주꾸미를 넣어 비벼 먹는 길을 택했다. 비빔밥 한 숟가락에 묵인지를 얹어 먹는 맛이란... 생각만으로도 씁음~



침이 고인다.

주꾸미 볶음에는 많은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다. 미나리, 양파, 청양고추 정도가 전부다. 그런데도 칼칼하고 텁텁하지 않은 담백함이 있다. 좀 맵다 싶으면 주꾸미 샤브샤브의 국물을 곁들이면 좋다.

주꾸미 샤브샤브는 육수 맛을 돕는 다시마와 무, 대파와 함께 팽이버섯, 미나리, 당근, 홍고추 등이 들어간다. 그리고 싱싱한 생물 주꾸미가 투하된다. 주꾸미는 너무 익히면 질겨지기 때문에 금방 건져내 채소(특히 무가 직접 농사지은 무라 달고 맛있다.)와 같이 초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으면 아들아들한 주꾸미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알이 빼곡히 들어찬 고소한 머리까지 다 먹고 나면, 제대로 우려낸 국물에 삶은 라면 사리나 우동 사리 등을 넣어 먹는데, 나름 오징어먹물 파스타 같은 느낌도 나면서 진하고 깊은 맛이 난다. 역시 사리에도 묵은지를 곁들이면 제 맛이다.



4월 중순까지가 제철인 주꾸미. 충남 보령 무창포와 서천 동백정에서도 주꾸미 축제가 한창이다. 주말에 봄나들이 삼아 주꾸미 여행을 다녀와도 좋겠고, 가까운 만석동 주꾸미 골목에서 알이 꽉 들어찬 신선하고 다양한 주꾸미 요리를 맛봐도 좋을 계절이다.

*주소 : 인천 동구 만석동 54-8 *전화번호 : 032-763-7041



글/장순지(사무처)
사진/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제물랑로는 화수 사거리에서 신광사거리까지의 길로 총연장 4Km의 도로이다. 인천의 중동구 일대를 제물포라고 부르게 된 것은 조선 중기에 성창포 일대에 수군 방어진지인 제물랑(濟物梁)을 설치하면서부터이다. 제물포란 제물랑이 설치된 포구란 뜻인 셈이다. 서양인들은 개항 이후 인천을 제물포라고 불렀으며 해방 직후 인천부를 제물포시로 명명한 적도 있어서 인천을 대신하는 지명 가운데 하나이다.

자연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녹색도시, 독일 부퍼탈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3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자연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녹색도시 독일 부퍼탈

도시경영연구부 장소현 초빙연구원

<출처: <http://photoblog.naver.com/kkim0930>>

독일 서부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위치한 도시 부퍼탈(Wuppertal)은 1929년 부퍼강을 따라 형성되었다. 당시 바르멘, 엘버펠트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룬스도르프, 크로네베르크, 포빙켈 등의 작은 도시들이 합쳐져 바르멘-엘버펠트(Barmen-Elberfeld)라 불리다가 1930년 주민투표를 통해 부퍼계곡(계곡=tal)이란 뜻의 '부퍼탈'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부퍼탈의 역사를 살펴보면, 11~12세기를 시작으로 16~17세기에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1527년 직물포백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고, 이후 건직물, 염색 등의 섬유가공기술이 발달하여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18~19세기 유럽대륙의 가장 큰 공업지역 중 하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방직, 화학, 제약, 전자, 자동차, 고무, 차량 및 인쇄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의 중심지이다.

오랫동안 산업의 중추 역할을 맡아온 부퍼탈은 도시 전체 면적의 2/3가 녹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도시 내의 녹지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복구과정에서 공원, 동물원, 숲 등의 재정비 과정을 거쳐 도시 어느 곳에서든 10분 거리에 공원이나 숲이 위치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인간의 생활 속에 자연이 자리 잡도록 하였다. 또 한 가지 도시경관상의 특징은 모노레일의 노선을 따라 100여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과 성장의 측면을 강조한 우리사회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시의 역사적 전통과 환경의 조화를 녹여 낸 부퍼탈의 모습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러한 도시발전 방향과 시각은 공생발전과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담론을 예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식 모노레일 슈베베반

부퍼탈에 있는 명물 중 하나는 110년 전에 건설된 모노레일이다. 현수식(懸垂式) 모노레일의 시초인 슈베베반(Schwebebahn)은 '하늘을 나는 차'라는 뜻으로 열차위쪽에 레일이 설치되어 열차가 레일에 매달려 운행되는 독특한 형태의 대중교통수단이다. 이 열차는 부퍼탈의 북동-남서쪽으로 연결되어 오버바르멘(Oberbarmen)에서 포빙켈(Vohwinkel)까지 이르는 20개의 역으로 구간길이가 약 13.3km이며, 총 운행시간은 편도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1901년에 개통된 이 열차는 시대의 획기적인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현재까지 안전하고 유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로 인해 급증한 인구에 대비함과 동시에 레일이 설치되기 힘든 지형에서도 매달려서 이동하는 형태로 건설함에 따라 교통난 해소와 관광자원의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진다.





◀슈베베반 초기운행의 모습

<출처: <http://blog.daum.net/loveacrc/453>>



슈베베반 현재의 모습 ▶

<출처: <http://www.enyber.com>>

슈베베반은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이자, 놀이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인해 지금까지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루 평균 약 7만 5천여 명이 탑승하며, 연간 탑승객은 2천 3백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슈베베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유지·보존되어 관광으로서의 기능은 물론이고, 독일 모노레일의 오랜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평가되고 있다.

○ 앵겔스 하우스 슈베베반

앵겔스하우스는 사회주의 철학자이자 변증법적·사적 유물론의 창시자인 프리드리히 앵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의 생가이며, 산업화시대의 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현재 초기 산업화 박물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칼 마르크스와 사상적 맥락을 같이 한 앵겔스는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사회과학적 이론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File:280505_001_Engelshaus_Barmen.jpg>

앵겔스 하우스의 건물은 18세기의 전형적인 건축양식으로 앵겔스를 비롯한 부퍼탈의 유명한 시민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어 산업혁명 초기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부퍼탈은 산업화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시도하지 않고 자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추구하였기에 초기 산업혁명의 모습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동시에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산업, 문화, 예술, 철학 등의 분야에서 역사적 산물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부퍼탈의 녹색성장과 산업화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 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독일 서부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위치한 도시 부퍼탈[Wuppertal]은 1929년 부퍼강을 따라 형성되었다. 당시 바르멘, 엘버펠트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룬스도르프, 크로넨베르크, 포빙켈 등의 작은 도시들이 합쳐져 바르멘-엘버펠트(Barmen-Elberfeld)라 불리다가 1930년 주민투표를 통해 부퍼게크(게크=tal)이란 뜻의 '부퍼탈'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3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연구

도시경영연구부 이 용 갑 연구위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150%이하의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전자바우처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존의 사회복지사업과 달리 사회복지기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영리 및 비영리기관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인천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2007년 약 33억원이 투입되어 21개 기관이 제공하는 9개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1년에는 약 85억원이 투자되는 89개 기관이 제공하는 33개 사업으로 성장하였다.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유형은 중앙정부가 개발한 사업을 지자체가 선택하여 실시하는 “지역선택형”과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한 후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쳐 실시하는 “지역개발형”으로 구분된다. 2011년 인천광역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체 예산의 31%를 투입하는 “지역선택형” 사업인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및 예산의 나머진 69%가 투입되는 33개 사업들은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비의 70%는 중앙정부, 15%는 광역지자체, 나머지 15%는 기초지자체가 부담하는 사회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즉 “지역개발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 제공기관 차원의 단순 서비스 개발·제공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개발·보급 필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인천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개발형”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천광역시에서 필요한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인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천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2007~2011년까지 인천에서 제공되었던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10년과 2011년에 타 시도에서 제공되었던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10년과 2011년에 타 시도에서 제공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서비스 제공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중·고등학교의 주 5일 수업 및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의 구분이라는 일곱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여섯 가지 사업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연과학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평일에는 유치원생, 토요일에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학교실 및 자연환경 속에서 아동의 건강한 신체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체활동 중심의 탐사체험,

둘째,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집에서만 있는 지적 장애인에게 혼자서 일상생활과 나아가 어느 정도의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셋째, 직장여성의 0~12세까지의 영유아와 아동이 아플 때 집에서 돌봐주고, 병원원과 약국 방문을 대행해주는 사회서비스,

넷째, 독거노인, 특히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에 대한 total-care 서비스,

다섯째,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를 함께 하는 교육,

여섯째, 곁경지역인 인천의 특성상 다수가 거주하는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 및 사회통합 서비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150%이하의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전자바우처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표로 보는 인천의 사회복지 현황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나호 보기

2012년 3월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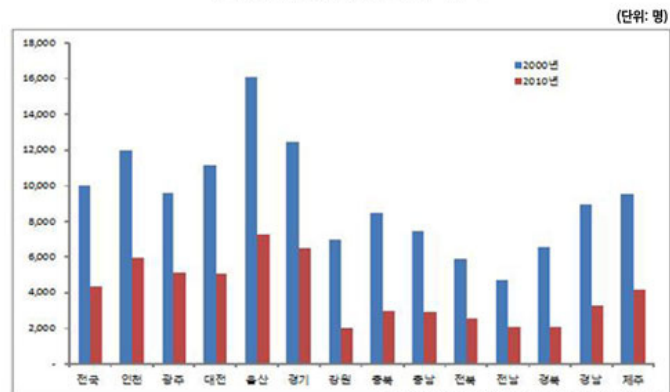
웹진 구독신청하기

지표로 보는 인천의 사회복지 현황

인천지역서비스지원단장 이 용 갑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사회복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있다. 인천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는 2000년 11,972명에서 2010년 5,957명으로 50.2% 감소하여,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토대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전국차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는 2000년 평균 9,994명에서 2010년 4,342명으로 56.6% 감소한 것을 고려할 경우 인천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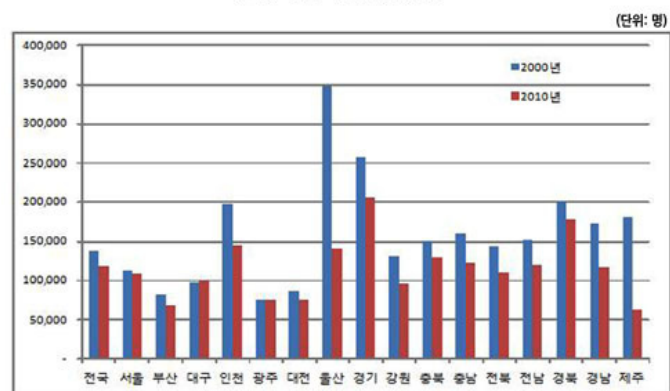
〈표 1〉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1년 및 2011년

대표적인 사회복지 시설인 사회복지관도 증가하여, 사회복지관 1개소당 주민의 수도 감소하였다. 인천의 사회복지관 1개소당 주민의 수는 2000년 197,077명에서 2010년 145,158명으로 26.3% 감소하여,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국차원에서 사회복지관 1개소당 주민의 수는 2000년 평균 138,251명에서 2010년 118,866명으로 14.0% 감소한 것과 비교할 경우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관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인천의 사회복지관 1개 당 주민 수는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표 2〉 사회복지관 1개 당 주민 수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1년 및 2011년

인천의 사회복지 상황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규모이다. 2010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국 인구의 3.1%인 1,549,820명이며, 인천의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4.8%인 73,749명이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 중 인천의 비율인 5.5%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1년 9월 말 현재 인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는 전체 세대의 3.8%인 40,614세대, 인구의 2.6%인 71,813명이다.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큰 남구, 남동구, 부평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57.2%가 거주하고 있다.

〈표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가구, 명)

	가구	인원
전체	40,614	71,813
중구	1,954	3,172
동구	1,839	2,892
남구	5,887	10,051
연수구	4,397	8,357
남동구	7,759	13,814
부평구	9,871	17,208
계양구	2,943	5,219
서구	3,913	7,406
강화군	1,794	3,175
옹진군	257	519

*2011. 9. 30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1년 및 2011년

〈표 4〉 노인복지시설*

(단위: 개소, 명)

	시설	생활인원
전체	253	6,142
중구	13	504
동구	4	72
남구	27	864
연수구	15	786
남동구	45	849
부평구	49	998
계양구	25	430
서구	35	615
강화군	36	1,002
옹진군	4	22

*2011. 9. 30 기준

출처: 인천광역시, 2011. 3/4분기 계간인천통계

인천의 사회복지 현황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들은 세분화된 사회복지 시설과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규모이다. 가장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이 사회복지시설들은 각 기초지자체의 인구비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기초지자체에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2011년 9월 말 현재 인천의 노인복지시설은 253개소이며, 모든 기초지자체에 노인복지시설이 존재한다. 전체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6,142명이며, 강화군에 소재한 36개소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전체의 16.3%인 1,002명이다. 이는 강화군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수용하고 있다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장애인복지시설*

(단위: 명, %, 개소, 명)

	장애인 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비율	시설	생활인원
전체	130,678	4.7	23	892
중구	4,889	5.2	-	-
동구	4,974	6.3	-	-
남구	21,101	5.0	2	-
연수구	11,420	4.0	3	146
남동구	21,967	4.5	1	-
부평구	27,527	4.9	7	281
계양구	13,998	4.1	2	80
서구	18,607	4.4	1	44
강화군	4,906	7.3	3	141
옹진군	1,289	6.7	4	200

*2011. 9. 30 기준

출처: 인천광역시, 2011. 3/4분기 계간인천통계

2011년 9월 말 현재 인천의 장애인복지시설은 23개소이며, 기초지자체별 장애인 복지시설의 존재여부는 장애인 규모와 큰 관련이 없다. 즉, 인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이에 따라 장애인의 규모도 가장 많은 부평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이 7개소가 존재하고,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281명이다. 하지만, 인천에서 두 번째로 큰 기초지자체인 남동구의 경우 장애인 수와 비교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은 1개소에 불과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에, 인구규모가 가장 작은 기초지자체인 옹진군의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이 4개소나 되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부평구 다음으로 많은 200명이다.

저출산·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사회복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있다. 인천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는 2000년 11,972명에서 2010년 5,957명으로 50.2% 감소하여,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토대가 개선되었다.